



칼빈의 개혁 사상*

이양호

(연세대학교 교수)

1. 서언

맥그래스(Alister E. McGrath)가 그의 「칼빈전」에서 “칼빈은 서양 문화가 그 독특한 형태를 갖기 시작하였을 때인 근대의 여명기에 개인과 제도의 전망을 변화시킨, 유럽 역사에 있어서 배자적인 인물(a seminal figure)임이 입증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칼빈은 현대 서양 사회와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며, 그의 「기독교 강요」는 현대 서양 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책이다. 트뢰츨취(Ernst Troeltsch)도 일찍이 “칼빈주의는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세계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현대 서양 문화가 현대 세계 문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으므로, 칼빈은 현대 사회와 현대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신학 사상은 서양의 종교를 이끌어 왔으며, 그의 정치 사상은 서양의 정치사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경제 사상은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 뛰어난 대답으로 여겨지고 있다.

* 본 논문은 1998년 10월 30일 본교 개교 50주년·종교개혁 481주년 기념 제2회 국내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다.

2 신학 사상

칼빈의 신학의 독특성 중 첫째는 삼위 일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이다. 트릴취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칼빈의 강조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칼빈주의의 첫째 가는 독특한 특징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칼빈주의의 유명한 중심 교리인 예정에 대한 관념이다.” 칼빈은 예정에 대한 관념에서 “절대적 주권적 의지로서의 하나님의 특성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칼빈에게 있어서 “중심적인 점은 피조물의 자기 중심적인 개인적 구원이나 신적인 사랑의 의지의 보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더욱이 하나님을 그의 사역을 단순히 한 때에 완성한 일시적인 창조자로 만드는 것은 냉담하고 빈약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가 세상의 첫 기원 못지 않게 세상의 영속적인 상태에 있어서도 빛난다는 점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칼빈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후 어떤 원리에 의해 스스로 운행하게 했다고 보는 것은 에피큐러스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을 게으르고 나태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칼빈은 성서에 따라 하나님은 조금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했다.

칼빈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의 표현이거나 심판의 표현이라고 했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백성들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그들의 악한 감정을 교정하고 욕망을 길들이고 자기부인을 실천하게 하고 나태에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며, 교만한 자를 낮추고 불경건한 자들의 계교를 분쇄하며 그들의 책략을 전복시키는 것이었다.

칼빈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배하시므로 아무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일단 경건한 사람 위에 비치면 그는 전에 자기를 누르던 극한 불안과 공

포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염려에서 구원과 해방을 받는다.” “그는 이전에 운명을 두려워했지만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 그가 위로를 얻는 것은 하늘 아버지가 만물을 권능의 장중에 잡고 그의 권위와 뜻에 따라 통치하며 그의 지혜에 따라 다스리므로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 아니고는 아무 것도 일어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칼빈은 악마와 모든 행악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굴레를 씌운 양 완전히 통제를 받고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들은 어떤 음모도 꾸미거나 그것을 실행할 수 없으며 혹은 철저히 계획을 한다 해도 그것을 행하기 위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악마와 그의 무리들은 쇠사슬에 속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갈이 물려지고 억제되어 하나님께 봉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칼빈은 섭리에 대한 무지는 모든 불행 중 최고의 불행이며 최고의 행복은 섭리를 인식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둘째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면서도 일반 은총을 주장함으로써 인간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하였다. “시민적 질서와 규율을 매우 공정하게 확립한 고대 법률가들 위에 진리가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것인가? 철학자들은 자연에 대해 바로 관찰하고 예술적으로 묘사했는데 그들을 눈이 어둡다고 말할 것인가? 논쟁술을 생각하고 조리 있는 화법을 우리에게 가르친 사람들을 지성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것인가? 의학을 발전시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노력을 다한 사람들을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할 것인가? 모든 수학적 과학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것들을 미친 사람들의 고함으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이들 주제들에 관한 고대인들의 저작들을 높이 찬양하지 않고 읽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것을 찬양할 만하거나 고상하다고 생각할 것인가?... 우리는 인간 본성이 그 참된 선을 빼앗긴 후에도 주님이 많은 은사들을 인간 본성에 남겨 두었다는 것을 그들의

예를 보아서 알아야 한다.” 칼빈은 여기서 법학, 철학, 논쟁술, 의학, 수학 등 모든 학문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 결론적으로 “이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는 자취들을 보며, 이 자취들이 인류 전체와 다른 피조물들을 구별한다”하고 말하였다.

셋째로, 칼빈 신학의 특징은 은총 혹은 신앙에 의한 칭의와 성화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와 성화 중 성화를 먼저 다루고 칭의를 나중에 다루었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회심은 중생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중생은 성화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우선 칼빈은 회개와 중생을 동일시하였다. “그러므로 한 마디로 나는 회개를 중생으로 해석한다. 중생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형상은 아담의 범죄를 통해 이그러지고 말살된 것이다”라고 칼빈은 말하였다. 또한 칼빈은 중생과 성화를 동일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 중생에 의해 그리스도의 유익을 통해 하나님의 의속으로 회복된다... 그리고 참으로 이 회복은 한 순간이나 하루나 한 해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늦은 진전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선택자 안에서 육의 부패를 씻고 그들을 죄로부터 정화하며 그들을 자신에게 성전으로 봉헌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지성을 참된 순결로 갱신하여 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회개를 실천하고 이 전쟁이 죽음에서만 끝날 것임을 알게 한다”라고 칼빈은 말하였다.

칭의와 중생의 관계에 대해 칼빈은 이 둘이 동일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분리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우선 칼빈은 칭의와 중생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칭의와 중생을 동일시한 오지안더를 비판하였다. “오지안더는 중생의 저 선물과 이 값없는 용납을 혼합하고 그것들을 하나요 동일하다고 주장한다”고 칼빈은 말하였다. 칼빈은 칭의와 중생은 분리되지 않지만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칭의의 은총은 중생과 분리되지 않으나 그것들은 구별된다. 죄의 흔적들이 의인들 안에 항상 남아 있다는 것

이 경험에 의해 매우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청의는 삶의 새로움을 향한 개혁과는 전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롬 6:4 참조]. 하나님은 그의 선택자 안에서 이 두 번째 점을 시작하고 그 안에서 일생을 통해 점진적으로 때로는 천천히 진보시키므로 그들은 항상 그의 심판대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위협이 있다.”

넷째로, 칼빈 신학의 특징은 교회에 대한 강조이다. 교회사에 있어서 교회론에 관심을 가진 신학자들은 많지 않았다. 칼빈은 교회론에 관심을 둔 많지 않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교회론에 깊은 관심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이다.

칼빈은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아버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또한 어머니가 될 것이다.” 칼빈은 이 어머니가 “우리를 태속에 품고 낳고 그의 가슴 속에서 우리를 기르고 마침내 우리가 가사적인 육체를 벗고 천사들처럼 될 때까지(마 22:30) 그의 지킴과 지도 아래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생명으로 들어갈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 49:7을 강해하면서 “그런 위대한 복음의 참여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즉 교회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것 밖에는 구원도 진리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기독교 강요」에서는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우리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기를 희망할 수 없다”고 말한다.

칼빈은 이처럼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묘사하는 데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톨릭적 혹은 보편적이라고 말해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누이지 않는다면-그것은 일어날 수 없다- 둘 혹은 세 [교회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한 머리에 의존한 것처럼 한 몸을 형성하며, 몸의 지체들처럼 연합되고 결합된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된다고 한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 성서적인 표현은 칼빈의 교회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참된 그리스도의 몸인 불가식 교회와 사악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가시적 교회로 구별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고 분열을 정죄하게 된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구속활동을 하는 두 방편은 말씀과 성례이다. 그러므로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옛날의 카타리파나 노바티아누스파나 도나투스파 그리고 칼빈 당시의 제세레파는 교회의 일치를 해치고 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32의 말씀처럼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유한 일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순결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분리해 나가는 일은 그리스도를 찢는 일이어서 용납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양떼로부터 제외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 머리 아래 한 몸으로 모으는 것을 제외하고는 희망할 안전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로부터 찢어지지 않을 것이며 찢어질 수 없다. 그것에 그는 불가분리의 매듭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과의 일치를 이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된 것으로 본다.”

칼빈은 삶의 순수성의 문제로 분리해 나가는 것도 잘못이지만 교리에 다소 불순성이 개입된다 하더라도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더욱이 교리들에 있어서나 성례들의 집행에 있어서 어떤 잘못들이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교회내의 교제로부터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참된 교리의 모든 조항들이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것들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은 그것들을 종교의 고유한 원칙들로 확정하고 의

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해 있다는 것 등등이다.

칼빈에 의하면 교리들 가운데 중심적인 것이 있고 주변적인 것이 있다. 그런 중심적인 것이 부정되면 참된 교회일 수가 없다. 그러나 “교회들 중에는 신앙의 일치를 깨뜨리지 않는, 논쟁이 되는 다른 것들이 있다.” 즉, 주변적인 것들이 있다. 칼빈은 근본적인 교리들 이외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비본질적인 교리의 차이문제보다는 교회의 일치문제가 더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칼빈은 교직제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관대했다. 파니에(Jacques Pannier)가 지적한 것처럼 칼빈은 주교 뿐만 아니라 대주교도 인정하고 있으며, 칼빈이 비판한 것은 주교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직책을 오용하는 것이었다. 칼빈은 영국교회의 대주교인 크랜머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 교회의 일치를 논하는 자리라면 - “그것은 내게 대단히 중요하므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열 개의 바다라도 건너가기를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칼빈이 생각한 교회일치는 루터파, 츠빙글리파, 영국국교회 등 기존한 교회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일종의 세계적 교회연합체를 구성하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정치 사상

칼빈은 고대 철학자들이 논의한 바에 따라 정부를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등이다. 그런데 군주정은 폭군정으로 전락되기 쉽고 귀족정은 과두정으로, 민주정은 폭민정으로 전락되기 쉽다고 한다. 칼빈은 세 가지 더 나은 정부 형

태 가운데 귀족정이나 아니면 귀족정과 민주정이 혼합된 형태가 다른 모든 형태들보다 탁월하다고 한다. 칼빈은 혼합정부가 최선의 정부가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즉, 군주정에서 왕이 자기 뜻을 정의에 따라 조절하는 일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 결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바람직하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그들은 서로 돕고 서로 가르치고 충고를 줄 수 있을 것이며,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잘못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칼빈은 국민이 관리를 선거하는 것을 탁월한 은사로 보고 있다. “만약 우리가 법관과 관료를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면(…) 그것은 탁월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시키며 선한 양심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인간의 정부에 대해 논의한다면 우리는 자유국가에 사는 것이 제후 아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유 없이 명령을 내리는 제후를 가지는 것보다 선출받아 그 직임을 수행하며 법을 준수하는 통치자를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지지할 만한 일이다.”

칼빈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민주체제 정치이념으로 기울어졌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는 귀족정을 좋게 생각했으나 제네바에서 7년간 지나고 난 뒤에는 “귀족정 혹은 귀족정과 민주정이 혼합된 형태”를 좋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 후 16년 뒤 1559년판 「기독교 강요」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관장하는 것이 더 완전하고 더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허드슨(Winthrop S. Hudson)이 지적한 것처럼 미국 혁명의 지도자들이 옹호한 정부 형태도 바로 귀족정과 민주정의 혼합이며,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보았기 때문에 국민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비록 독재자들이 나와 독재를 할 때라도 국민은 저항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불의하고 난폭하게 다스리는 자들은 백성의 악함을 벌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일으킨 자들”이기

때문이다. 독재자가 나타나서 독재를 할 때 국민들은 “먼저 주님의 채적으로 징계를 당하는 바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왕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왕국들을 교체시키는 주님의 도움을 간청”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종들 가운데서 공개적인 해방자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명령을 주어 악한 정부를 벌하고 불의하게 압박 받는 백성을 비참한 불행에서 구출해 낸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런 의로운 종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를 위해 다른 의도와 다른 용건을 가진 사람들의 걱정을 이용한다.” 첫 번째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합법적 부름에 따라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들에게 준 위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신민들을 벌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처럼 “그들은 하늘로부터 무장되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더 작은 권력을 진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들의 경우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장중에서 이 일을 하지만 악한 생각으로 악한 일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독재자를 징벌하기 위해 의로운 하나님의 종들을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권욕을 가진 악한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행동은 그 자체에 따라 심판을 받겠지만 주님은 거만한 왕들의 피뎀은 홀을 분쇄하고 용인할 수 없는 정부를 전복할 때 그들을 통해 똑같이 자기의 일을 성취한다. 제후들은 이를 듣고 두려워할지이다.”

그러나 칼빈은 여기서도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난폭한 폭정을 교정하는 것이 주님이 보복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복종하고 참는 것 이외에 다른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칼빈은 곧바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사인(私人, *privatis hominibus*)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만약 이제 왕들의 방자함을 견제하기 위해 임명된 백성의 관리들(*populares magistratus*)이 있다면(...) 나는 그들이 그들의 임무에 따라 왕들의 심한 방자함을 저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결코 아니

다.” “만약 그들이 낮은 일반 민중을 난폭하게 습격하고 욕보이는 왕들에 대해 눈을 감아 준다면 그들의 가식은 극악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고 나는 선언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배정에 의해 백성의 보호자들로 임명되었음을 알면서 기만적으로 백성의 자유를 배반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백성의 관리들이 독재자의 독재를 보고도 저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배임이고,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칼빈은 백성의 관리에게만 저항권을 인정하고 사인에게는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인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관리에 대한 복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떠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의 악한 선포에 맹종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았다. 예언자는 백성들이 사악한 왕의 칙령을 받아들인다고 심하게 책망했다. 주님은 왕들 중의 왕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 때문에 왕들에게 복종하는 우리가 왕들을 만족케 하기 위해 주님을 불만케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칼빈은 말한다.

우리는 칼빈 안에서 후에 권력분립으로 표현된 권력의 상호견제 사상, 후에 대의 민주주의로 표현된 민주정과 귀족정의 혼합 정부에 대한 사상, 후에 의회의 탄핵 소추권으로 표현된 백성의 관리의 저항권 등 많은 민주주의의 사상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칼빈은 사인의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종교 문제에 대한 사인의 저항권은 인정했기 때문에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칼빈주의자들이 종교 문제로 박해를 받을 때 저항권의 사용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사용했으며,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칼빈이 없었다면 크롬웰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한 벨로크(Hilare Belloc)의 말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칼빈의 독재자에 대한 해방자의 사상과 독재자에 대한 백성의 관리의 저항권 사상은 크롬웰에게 청교도 혁명을 주도해 나가면서 국왕을 처형할 도덕적 용기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4. 경제 사상

칼빈의 경제사상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면이다. 우선 칼빈은 일부 재세례파가 재산의 공유를 주장한 데 대해 사유재산 제도를 옹호했다. 칼빈은 사유재산제는 인간이 타락한 후 하나님이 정해준 제도라고 주장했다. “각 개인이 자기의 사유재산을 소유하도록 허락하는 시민적 질서가 문란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재산의 소유권이 인간들 사이에서 구별되고 개인적이 되는 것은 인간들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칼빈은 말했다. 예루살렘 원교회가 공유재산 제도를 택했다는 재세례파의 주장에 대해 칼빈은 사도행전에서 받을 팔아 그 값을 바친 두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데, 만일 모든 사람이 재산을 바쳐 재산을 공유했다면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그래서 칼빈은 예루살렘 원교회는 재산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다만 신앙이 돈독한 신도들이 재산을 팔아 구제할 정도로 열성을 보였다고 해석했다.

칼빈은 시편 주석에서 구제활동을 할 때 자기 것으로 어느 정도 구제할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계산할 것이며, 지나친 구제활동으로 가족을 곤궁에 빠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칼빈은 사유재산 제도를 옹호함과 동시에 부의 편재를 인정했다. 재산의 불평등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많이 준 것은 부유함 속에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갖고 도와주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며, 어떤 사람을 가난하게 한 것은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재세례파는 재산의 공유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표현인 것으로 본 데 반해, 칼빈은 재산을 공유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인 자선을 행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광기에 의해 성취되는 일이란 아무도 선한 양심으로 구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칼빈은 말했

다. 또한 칼빈은 공유재산 제도를 택하면 인간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나태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칼빈은 수도원의 재산의 공유에 대해 이렇게 비판한다. “수도사들은 아무 것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들의 규칙을 지킨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뻔뻔스러움은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그들은 아무 것도 팔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그들의 게으른 배를 가난한 자들의 피로 채우며, 재산의 공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온 세상이 굶주린다 하더라도 다만 자기들은 풍만하고 사치스럽게 생활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칼빈은 소유의 불평등을 인정함과 동시에 생활의 불평등도 인정했다. “우리는 부자가 빈자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정도로 평등을 주장하지 않는다. 빈자는 거친 빵과 검소한 식사를 하고 부자는 그의 상황에 따라서 더 잘 먹을 수 있다”라고 칼빈은 말했다.

칼빈은 이처럼 사유재산 제도를 옹호함과 동시에 상공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칼빈은 상공업을 하나님이 정한 천부적 직업으로 보았으며 상인들의 매매활동이 건전한 사회생활에 있어서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상업의 거래 없이 공적 정부가 지탱될 수 없다”라고 칼빈은 말했다. 상품을 쉽게 수입하고 수출할 수 있는 강이 있는 지역은 급속도로 번영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으며, 무역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또한 상인들은 부지런히 활동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불편과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면서 이윤을 남긴다고 말했다.

칼빈은 상공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이자를 받는 것을 허용했다. 칼빈은 성경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것은 가난한 자들이 소비자금으로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것이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더 벌기 위해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에 대해서까지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돈에는 증식성이 없다는 중세적 주장에 대해 칼빈은 돈을 단순히 금고 속에 넣어두면 증식성이 없지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 돈을 증식시

킨다고 주장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돈은 돈을 낳지 않는다고 한 성 암브로스와의 크리스소스톰의 이론은 내 판단으로는 너무 피상적이다. 바다가 무엇을 낳는가? 땅이 무엇을 낳는가? 나는 집을 빌려주고 수입을 얻는다. 거기서 돈이 자라기 때문인가? ...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소유에서보다 상업에서 돈이 더 결실이 있지 않는가? 농지를 빌려주고 지대를 받는 것은 합법적이고 돈을 빌려주고 그 열매를 받는 것은 불법적이란 말인가? ... 상인들은 어떻게 그들의 이윤을 얻는가?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라고 말할 것이다. 확실히 돈을 금고 속에 넣어두면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동들도 알고 있음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자는 이 돈을 한가하게 간직하여 아무 소득도 얻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윤은 돈 자체로부터 오지 않으나, 그러나 그것이 유통됨으로써 온다.

칼빈의 이런 사상에 정념을 억제하고 이성을 따르라는 스토아적 인문주의의 정신에 근거한 금욕주의적 기상과 합리주의적 사고가 결부되어 칼빈의 사상은 베버가 말한 '자본주의의 정신'의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레이엄(W. Fred Graham)은 막스 베버(Max Weber)를 비판하면서 막스 베버가 칼빈주의자라고 인용한 벤자민 프랭클린을 비칼빈주의적 퀘이커 교도의 세속화한 아들이라고 혹평했지만, 그러나 나태를 비판하고 노동을 강조한 점에서 칼빈과 프랭클린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막스 베버의 인용에 의하면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시간은 돈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의 채권자가 당신의 망치소리를 새벽 다섯시나 저녁 여덟시에 듣는다면 그는 지불 기일이 6개월이나 연장된다 해도 만족해 할 것이다... 5실링 가치에 상당하는 시간을 허비하는 자는 5실링을 상실하는 것이며, 5실링을 바닷물에 버린 것과 마찬가지이다." 칼빈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고 있는 동안 게으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손발을 주었고 산업을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할당된 짧은 삶의 시간을 볼 때 우리는 나태 속에 빈둥빈둥 지내는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 칼빈은 병석에 누워서도 제자들에게 구술하여 저작 활동을 계속했다. 병 문안을 왔던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겨 좀 쉬라고 권면하면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대답했다.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삶”은 칼빈과 칼빈주의자들의 가르침이자 삶이었다.

칼빈은 시간을 아껴 일할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검소하고 절약하는 삶을 강조했다. 칼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검소한 생활과 절제를 요구하며 무절제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금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 대해 “수도사들이 마치 그리스도가 사색적 생활과 활동적 생활을 비교한 것인 양 이 구절을 강조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중세적 해석을 비판하고 난 뒤 마르다의 잘못은 손님 접대를 위해 지나치게 준비한 것이었으며 “그리스도는 오히려 절약과 간소한 식사를 좋아했다”라고 말했다.

요컨대, 칼빈이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상공업과 상공업상의 이윤과 사업자금의 이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근면하고 검소한 삶을 강조한 것은 막스 베버가 말한 칼빈주의자들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으며, 이런 요소들이 자본주의의 발달에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사유재산제는 신적 제도이긴 하지만, 기금을 형성하여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서 풍부한 사람도 없고 결핍한 사람도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가르쳤다. 칼빈은 빈부의 격차를 인정했지만, 우리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면 왜 이 세상에 빈곤이 있게 하였겠는가?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부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것을 볼 때 운명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이 세상의 덧없는 재물을 불공평하게 분배해 준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한다면... 이것은 좋은 증거이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수납인이며, 우리가 그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 한 일로 간주해 준다고 말했다.

칼빈은 내태한 삶을 비판하고 근면성을 주장했지만, 노동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보았다. 노동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 행위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고 보았다. 중세 신학에서는 행위와 구원이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있었다. 인간은 행위를 수단으로 구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에서는 구원과 행위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었다. 먼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의롭다 함을 받고 그 결과로 선한 삶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행위와 구원이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있을 때 행위가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지 언젠가 비난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원과 행위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을 때 행위가 없으면 배신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된다. 칼빈에게 있어서 노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봉사하는 것이며, 그래서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리는 것이었다.

칼빈은 일을 강조했지만 그것은 일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 칼빈은 노동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보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유익한 일,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삶의 어떤 형태도 인간사회에 유익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찬양받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칼빈은 말했다.

칼빈은 노동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봄으로써 임금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았다. 말하자면 노동이 은총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는 선물이 되는 것이다. 칼빈은 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하나님이 피고용자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부여한 것을 자기가 전달해 주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그것은 피고용자의 몫을 약탈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칼빈은 상업활동을 인정했지만 부정직한 계약, 불량한 계량기구, 매점, 매석, 독점, 폭리 등을 신랄히 비판했다. 칼빈은 사업자금에 대한 적정한 이자를 인정했지만, 고리대금이나 가난한 사람이 빌리는 소비자금에 대한 이자는 금지했다. 칼빈 당시의 제네바에서는 1558년 사치 금지법을 제정하여 과소비를 규제했다. 그리고 1559년에는 제네바 아카데미가 세워졌으며 교사들의 봉급을 시가 담담함으로써 가난한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게 했다.

칼빈은 교회에 집사제도를 둬으로써 집사들을 중심으로 불우한 자들을 위해 물질을 거두고, 병자를 간호하고 불우한 자들을 위한 구제활동을 하는 등 복지활동을 하도록 했다. 중세에는 deacon이 부제였으나 칼빈은 deacon의 역할을 사제 보좌의 역할이 아니라 사회사업가의 역할을 하도록 했으며 칼빈은 이것은 성서적 의미의 deacon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칼빈은 이렇게 교회에 집사제도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헌금은 고대교회의 관례에 따라 4등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법들에는 교회의 수입을 네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교직자를 위해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하나는 교회 및 다른 건물들의 보수를 위해, 하나는 가난한 나그네나 가난한 본토민들을 위해서였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 수입의 “적어도 절반”은 가난한 자의 몫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칼빈이 “적어도”라는 표현을 쓴 것은 고대교회에서는 재난 때문에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때는 그 절반 이외에도

교회의 기물을 팔아서 구제했기 때문이었다. 칼빈은 고대교회의 아카키우스 감독은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성직자들을 모아 놓고 “우리 하나님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 때문에 잔이나 컵이 필요 없습니다”하고 말하고 교회의 그릇들을 녹여 팔아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사 준 예를 들고 있으며, 또 암브로스가 교회의 거룩한 그릇들을 녹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아리우스파에서 보고 비난했을 때 암브로스는 “교회가 금을 가진 것은 간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이어서 칼빈은 암브로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교회가 가진 것은 무엇이나 곤궁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네바에서는 집사들이 구빈원 원장직을 맡았으며, 그들은 교회 헌금 외에도 시당국이 배정해 주는 예산, 벌금, 기부금, 자선을 위해 헌납된 물건을 판매한 대금 등의 수입원으로 구제활동을 해 나갔다.

칼빈은 시당국이 구빈원을 세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외에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일자리가 없을 때는 새로운 사업을 벌여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당국이 노동에 대한 임금이 정당하게 지불되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하고 물품과 금전의 유통과정에도 개입하여 부당한 상행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칼빈은 사유 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상공업 활동을 긍정하고 금융업을 인정하는 등 자본주의적 제도를 지지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기금을 늘려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복지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칼빈이 피력한 사상은 그를 존경하는 칼빈주의자들에 의해 현대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칼빈이 지향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사회의 실현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하겠다.